

“우주산업 주도” 고흥 ‘글로벌 우주항’ 도약 속도 붙는다

2031년까지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
1조6천억 투입 국가산단 등 조성 박차
도, 2우주센터 유치·특별법 제정 주력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고흥이 민간 주도 우주개발 ‘뉴 스페이스’ 시대의 전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고흥이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글로벌 우주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 등 핵심인프라 조성과 SOC 확충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9년 6월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외나로도에 발사체조립동, 발사대 등을 갖춘 나로우주센터가 개관하면서 우주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고흥은 공공·민간 분야 위성 발사계획 수요 대응이 가능한 국내 유일 지역으로 최적의 우주산업 육성환경을 보유했다.

전남도는 국내 유일의 발사장을 갖춘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12월 정부로부터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이후 2031년까지 총 1조6천84억원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 민간발사장 등 24개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대 153만㎡(약 46만평) 규모로 3천800억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해냈다”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27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지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준공되면 우주발사체 핵심 기반인 나로우주센터, 민간발사장 등과 연계해 우주산업 연구·개발·생산 공간 조성을 통한 민간기업 투자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지난해 6월 국가산단 조성 예타 면제 최종 확정에 이어, 올해 6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38개 엔지니어링·스타트업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민간기업의 관심도 크다.

2030년까지 1천400억원이 투입될 민간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는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전망이다.

1천500억원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소재·부품 산업 기반 구축, R&D, 인력 양성 등을 주도하는 우주발사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조성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겐 우주발사체를 테마로 한 과학 교육과 현장 체험시설, 우주과학 문화 활동 등을 제공하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제2 사용 발사장을 포함한 첨단 발사장을 갖춘 제2

우주센터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제2우주센터는 발사체 시험, 조립, 발사 등 전 주기 업무를 집적화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혁신기업·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기업 지원, 기술 실증·인증을 담당하는 우주청 산하 기관인 우주항 공산발전총원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우주산업 기반이 되는 SOC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도로, 철도 등 3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 접근성 획기적 향상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을 변경 고시했다. 국도 15호선 확장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며 고흥읍에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 60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고흥-광주 고속도로는 올해 하반기 수립되는 정부의 제3차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 중이다. 경전선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하는 고흥 우주선 철도 사업은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흥이 단순한 발사장 소재 지역이 아니라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엔진 성능에 비행시간 줄었다...7·8차 발사도 예고

1·2·3단 모두 노미널 이상 연소 성능

우주청 “8차 이후 매년 한번 이상 발사”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 엔진 성능 향상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내후년까지 예정된 5·6차 발사에 이어 7·8차 발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영반 우주항공청장, 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 등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하며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윤 청장, 박 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이번 4차 발사에서 총 비행시간은 914초로

애초 계획인 1천284초보다 단축됐다. 그 이유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최종 추적 종료 시점은 이륙 후 18분 25초 뒤다. 실제 이번 비행을 진행하면서 1·2·3단 엔진 모두 연소 성능이 노미널 추정 값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미션 시간이 짧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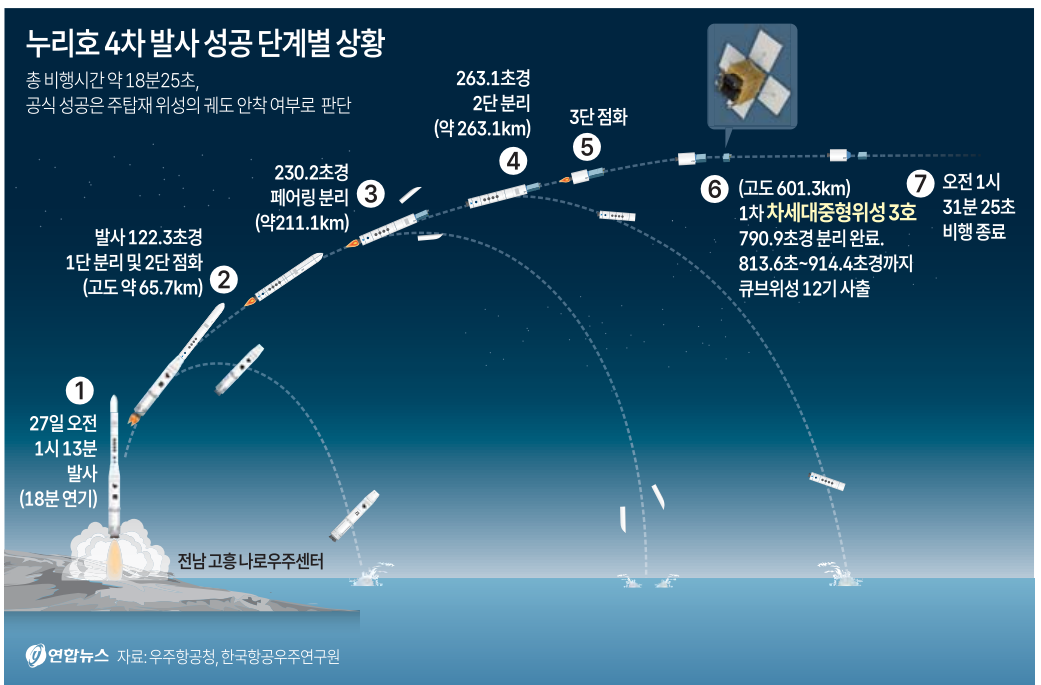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향후 누리호 총조립을 맡았는데, 발사 운용 부분을 어떻게 이전하나. 또 탑재체 실을 때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5·6차 발사에서는 한화에어로가 좀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발사지휘센터(MDC)나 발사관제센터(LCC)에 한화에어로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한화에어로가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발사 때는 실제 콘솔을 주도적으로 운용할 것이고 이 같은 방식으로 발사운용 부분을

이전할 예정이다. 또 현재 누리호 사업 6차 발사까지는 탑재체 비용이 설정돼 있지 않다. 고도화 사업 기간 내에는 국가 공공적 목적 등을 바탕으로 탑재 위성이 결정되면 탑재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탑재를 진행한다. 7차 발사 이후 국가가 아닌 민간 주도 형태가 될 경우의 비용 산정 방식은 아직 미정으로 향후 우주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내후년 6차 발사 이후 7차, 8차 발사로 이어지는 계획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누리호 고도화사업은 6차까지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7차 발사는 우주청에서 고민하고 있다. 2027년에 6차 발사를 마무리하고 2028년 7차 발사 예정이다. 7차 발사를 위해 내년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누리호 고도화사업의 연장선에서 7차 발사



에 대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8차 이후부터는 적어도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 이후 계획은 추후 한번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안전한 광주전남

함께 만든 교통안전

교통사고 없는 세상을 위해
운전자와 함께하는 **안전벨**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사고 당위성

운전할 때, **안전벨**을 지키면 사고가 안나고
나의 안전과 우리 지역을 위한 최고의 봉사입니다.

※ 안전벨은 안전거리 준수, 전방주시 유지, 안전벨트 착용하고 운전하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 심각성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 171,475건 발생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3,877명 발생
(하루 평균 11명 사망)

부상자
교통사고 부상자 272,527명 발생
(부상비용: 158.9%)

※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 현황 (최근 10년 기준)

무사고 운전 방법

01 안전거리
안전거리 확보하기
* 속도별 안전거리
100km/h 주행 시, 100m 이상 시간거리 유지

02 전방주시
전방주시 유지하기
전방주시 3초 안 할 경우
100km/h 주행 시,
83.3m 눈길과 주행과 동일

03 안전벨트
안전벨트 착용하기
광주·전남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안전벨트 미착용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라남도 Jeollanamdo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Police

전라남도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CMYK